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3.

발 의 자 : 신현영 · 안민석 · 김정호
김성주 · 이탄희 · 김병욱
임호선 · 홍정민 · 고영인
박 정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신고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,

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 및 제 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현장”을 “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”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1천500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현장출동) ① (생략)	제11조(현장출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<u>현장에</u>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1조(업무수행 등의 방해죄) ① 제11조제2항·제3항, 제12조제1항, 제19조제1항 각 호,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	제61조(업무수행 등의 방해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 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 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</u> <u>천5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5</u> <u>천만원</u>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